

볼로냐 도서전에서 벌어진 진풍경

국내 출판사들 판권 싸움이하고 수상작에만 집중해

이정모 | 북메세 에이전시 유럽지사장

출판인치고 볼로냐 아동·청소년 도서전에 대한 언론 보도를 그냥 흘려보낸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볼로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면 족하다. 또 많은 출판인들이 직접 참관했으니 생생한 경험담을 더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건 우리 이야기이고 우리 생각이다. 우리의 거래 파트너들은 어떤 생각으로 볼로냐에 오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때론 이런 점이 궁금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독일 출판사들의 가장 중요한 판권 수출국은 한국

독일 출판계에서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유료화의 도입이다. 유료화의 도입은 출판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 이에 따라 베르텔스만은 가을에 펴낼 책의 중수를 20% 줄이기로 했다. 적어도 올해 중에는 예년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독일 출판사들은 올해 유난히 볼로냐에 큰 기대를 걸었다. 내적 불황을 외적 호황으로 극복하겠다는 생각이다. 자그마치 76개의 출판사가 부스를 차렸다.

독일 출판사들은 아직도 영미권의 출판사로부터 거의 일방적으로 판권을 구입한다. 스페인, 그리스, 터키와 네덜란드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와는 사고 파는 데 균형이 잡혀 있다. 그렇지만 독일 출판사들이 이들 국가 출판사들과 거래하기 위해 볼로냐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가을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면 족하다. 평소에 팩스와 이메일로 거래를 하고 도서



독일 출판인들이 볼로냐에 가는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 판권을 팔기 위해서다. 사진은 볼로냐 아동·청소년 도서전 전시관.

전은 파트너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 또 젊은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발굴하는 데 볼로냐는 아주 훌륭한 기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이들이 볼로냐에 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바로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 출판인들을 만나는 일이다.

독일 서적상협회 기관지인 《비르젠블라트》는 볼로냐 도서전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자에 이렇게 보도했다. “볼로냐 책시장에 내놓은 판권은 특히 한국 출판사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싸늘이(abgegrast)됐다. 도서전에서 독일 출판사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판권수입국이다.”

필자는 게으르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도 호텔 예약을 제때 하지 못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싼 호텔에 묵어야만 했다. 덕분에 몇몇 유럽의 출판인들과 가벼운 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같은 책에만 관심 쓰는 한·일 출판인들

파트모스 출판사의 아동책 편집장인 다니엘라 필트하우트는 “그들은 보통 한 출판사에서 4

~5명이 한꺼번에 오지요. 때로는 에이전시가 지 동반하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판권을 구입할 책을 결정해버립니다” 하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실제로 독일 출판사들이 한국 출판사에게 특별히 많은 상담시간을 배정하도록 만들고 있다. 에슬링어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인 안네 루카는 특히 그림책 분야에서 한국 출판사들의 신속한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절대적으로 우선적인

요소지요. 정작 텍스트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책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면 말을 막고 다른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고 불평했다.

오는 6월 서울 도서전에도 온다는 한 독일 여성은 이제 거의 조롱조다(난 그녀와 친구다. 따라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

“그건 한국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야. 대만과 일본 사람도 똑

같아. 아니, 일본이 좀더 심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같은 책에만 관심을 갖느냐는 거야. 그것도 딱 1년 늦게 말이야.”

필자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다. 최근 일러스트레이션은 어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단정하고 예쁜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아이들의 개성을 고려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림들이 호평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출판사들은 이런 그림에는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출판 이듬해에 그 책이 상을 받으면 ‘모든’ 출판사가 그 책을 문의한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방으로 올라가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한국 출판사는 너무 게으른 것 아냐? 모든 책을 다 사가잖아. 난 이제 무슨 책이라도 한국에 팔 자신이 있어.” 음, 이 친구가 6월에 한국에 오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하여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우리가 굳이 볼로냐까지 갈 일은 없어질 것이다. 모두들 서울로 몰려올 테니까. ■